

동방신기 해체땀 1천억 한류시장 '붕괴'

입력 2009. 8. 3. 06:35 · 수정 2009. 8. 3. 09:07



검증된 상품... 중국시장 아쉬워

남성 그룹 동방신기의 해체 가능성에 1,000억 원대의 한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동방신기는 올해 일본 전역을 도는 투어식 콘서트로 30만명을 동원하며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이들은 올해 '싱글 30만장 출고' '앨범 30만장 판매 돌파' 그리고 '공연 관객 30만명' 동원하는 '트리플 30만' 고지에 올랐다.

이를 통해 거둬드린 앨범 판매와 입장권 수익이 비공식적으로 7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중국 대만 홍콩 태국을 도는 3번째 아시아 투어의 매출까지 더하면 동방신기는 1,000억 원대 매출 시장을 연 첫번째 주인공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명의 멤버가 소속사를 대상으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장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만약 동방신기가 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중분해 된다면 천문학적인 문화 콘텐츠 수익이 날아가고, 나아가 한류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방신기는 2006년 일본에 진출해 토착화 전략을 실천하며 일본 최고 그룹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일본 데뷔 3년 만인 지난해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하더니 이어 4회 정상을 차

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외국인 그룹이 세운 최다 신기록이다. 동방신기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태국 등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며 아시아 대표 그룹으로 성장했다.

동방신기의 상품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다. 일본 연예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예는 지난달 도쿄돔에서 열렸던 콘서트다. 비공식적으로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2일간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입장권 판매 수익이 약 70억원을 기록했고 관객이 구매한 각종 기념 상품 수익도 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중국 시장이다. 아시아 전체 시장 규모를 더해도 중국 시장의 규모를 넘지 못한다. 동방신기가 일본을 넘어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시기에 악재가 터진 점은 못내 아쉽다. 8년전 한류의 물꼬를 텃지만 아쉽게 해체로 사라진 H.O.T가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방신기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H.O.T의 전처를 딛고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다.

여기에 반일 감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일본 최대음반사 에이벡스가 동방신기에 전력을 쏟은 것도 힘이 됐다. 이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의 활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해체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해외에 머물던 SM의 수장 이수만 회장도 급거 귀국, 해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동방신기는 일본 보다 오히려 중국어권에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다. 매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